

문경시, 비대면·안심 관광 대표도시로 우뚝

여름휴가 최고 여행지 전국 9위 선정 등
각종 관광 평가지표서 우수한 성적 거둬

문경시가 올해 각종 관광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컨슈머인사이트’에서 발표한 2021 여름휴가 최고 여행지에서 전국 9위에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인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사업’에 관광지 2개소, ‘친환경 안심 관광지’에 1개소가 선정되는 등 코로나19시대 선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했다.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8081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지 만족도와 휴가지로의 추천 의사 여부에 대해 ‘2021년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54개 시·군 중 9위에 오른 문경시는 1000점 만점에 종합 756점을 얻어 전국 평균 721점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무려 31계단을 상승해 이룬 순위라는 점

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문경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인 전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25개소에 단산 모노레일과 코랄라 2개소, 친환경 추천 여행지 31개소 중 문경새재 1개소가 선정돼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입증했다.

인바운드 안심관광지에 선정된 단산모노레일과 에코탈라는 한국관광공사의 VK사이트(www.visitkorea.or.kr) 내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항목에서 홍보될 예정이다. 추후 해외지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홍보하고, 해외 여행사 상품화를 지원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관광객을 모객 한다는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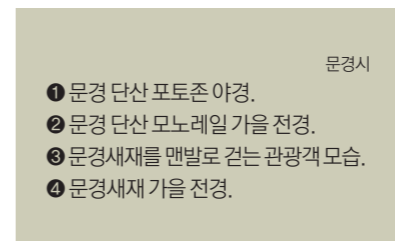
친환경 추천 여행지에 선정된 문경새재는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visitkorea.or.kr)에서 ‘친환경까지 확산 여행지’로 웹페이지가 구축돼 있어 지속가능한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

들의 발걸음을 끌고 있다.

그동안 문경시는 코로나19 시대 여행의 주류로 떠오르는 MZ세대를 목표로 기존의 관광안내지도, 관광홍보책자 등을 리뉴얼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코로나에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문경새재, 단산 모노레일 등 비대면·안심 관광관광지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진남교반 주변의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관광업 서비스역량강화교육’도 여행 만족도 등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기존의 관광모델에서 비대면·맞춤형 관광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문경의 주요 관광지를 무더기로 단산하늘길 트레킹 대회 및 밤하늘 별빛 캠핑축제, 와이너리 투어(Winery Tour) 등 양질의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방문객이 찾고 만족할 수 있는 대표 관광도시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영주시 임인년 신년화두 팸플릿.

영주시, 지속가능한 시정구현에 ‘온 힘’

2022년 신년화두 ‘자아작고(自我作古)’ 선정

영주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화두로 ‘자아작고(自我作古)’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아작고’는 ‘옛것에 얽매지 않고 나부터 새로운 선례를 만든다’는 의미로 현재 추진하는 시정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지속 가능한 영주시 구현에 온 힘을 쏟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시는 올 한해 코로나19 시국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시민들과 영주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 운영에 뛰어들 결과, 민생 회복은 물론 미래 먹거리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뜻깊은 해였다고 되돌아보았다.

내년 시는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 한문화테마파크 ‘선비세상’ 개장, 첨단배터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먹거리가 될 역점사업들과 함께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로 시정을 채워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시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일상회복과 미래성장을 동시에 이뤄나갈 것”이라며 “영주시가 자아작고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청송, 고추 재배농가 경영안전에 총력

건고추 정부지원 농협수매 차액보전 지원

청송군은 이달 16일 청송농협 주관으로 건고추 244000근(708호)에 대해 정부지원 농협수매를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20%), 지자체(50%), 농협(20%), 경제지주(10%)에서 각각의 재원비율에 따라 보조재원을 마련했다. 청송군은 수매 완료 시 수매농협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예정이다.

그간 청송군은 올해 고추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위해 농업관련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대한 대책의 목적으로 올해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고추재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설명하고 정부지원 건고추 수매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청송군의회 차원에서 정부 건

고추 긴급수매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는 등 이번 정부지원 농협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10월 관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151400근을 수매한 바 있다. 이는 농업·농촌의 현안사항을 지역 농협과 협업체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이번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고추시세가 지속 하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생산비도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건고추 정부지원 농협수매 현장 모습.

고성군 텃밭동아리 “이웃과 따뜻한 마음 나눴다”

작물 나눔 잔치... 공공실버주택 어르신들에 전달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10일 공공실버주택 야외정원에서 텃밭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텃밭 작물 나눔 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텃밭동아리의 1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텃밭에서 수확된 작물을 조금씩 나눠 담아 고성군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한 건강도우미 약상자와 함께 공공실버주택 어르신

들에게 전달했다.

박세욱 텃밭동아리 회장은 “1년 동안 회원들이 열심히 키우고 수확한 작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공공실버주택 어르신들이 서로 건강을 챙기고 사랑하며 생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윤정 관장은 “텃밭을 통해 공공실버

주택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연말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실버주택 텃밭동아리는 아파트 내 3층에 있는 텃밭에서 입주민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 결성된 주민동아리로, 상추, 고추, 배추 등의 작물을 키우고 나누며 이웃 간의 서로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채재욱 기자

고성군청소년센터 ‘아무튼 발표회’ 성료

동아리 활동 마감... 공식 유튜브 공연현장 송출

고성군은 11일 화하면 동부청소년센터에서 고성군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마감하는 제5회 고성군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아리 활동을 정리하며 그동안 갖고있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무튼 발표회’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화하면 동부도서관 1층으로 새롭게 이전해서 개관하는 고성동부청소년센터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으며,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악단 ‘ON’의 현악 3중주를 시작으로 총 6개의 청소년 동아리와 지역주민의 축하 및 찬조 공

연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이번 고성군청소년어울림마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집합 인원을 99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발표회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지 못해 아쉬운 청소년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고성군 공식 유튜브에서 공연 현장을 생중계로 송출했다.

행사 현장에는 공연과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일부 관람객이 함께했으며, 발표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가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됐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새로운 출발을 시



고성군청소년센터 ‘온’은 11일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작하는 고성동부청소년센터가 화하면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놀이터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1년 동안 자신의 꿈을 위해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실력을 갈고닦은 청소년들이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재욱 기자

김천호두 대표과일 ‘최우수’

전국 최대 주산지 위상 UP

김천호두가 ‘2021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해 전국 최대 호두 주산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시는 13일, 영예의 최우수상과 시상금(200만원)을 받은 김희동씨를 소개하며 “김씨는 부항면 소재지 3ha에서 연간 4t의 호두를 생산해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과일 산림과수분야심사는 ‘사도지사가 추천한 4개 품목(호두·대추·딸기·감)의 과일을 국립산림과학원의 과원심사와 외관심사, 계측심사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천시는 ‘2022년 산림산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에 사용될 국비지원사업비 25억원(100%)을 지원받게 됐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호두의 중장기적인 육성전략과 호두산품종개발을 통해 타 지역 호두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자리매김을 해 나갈 것”과 “김천호두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김천호두의 명성을 한번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 호두는 2018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019년에 열린 친환경농산물품평회에서는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찬희 기자



강진군은 1일부터 8일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버스 운영했다.

강진군, 찾아가는 백신버스

코로나 추가접종 순회 실시

강진군은 1~8일까지 ‘찾아가는 백신버스’를 운행해 군민 1000여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방문 접종팀을 구성하고 보건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치과·물리치료 버스 2대를 활용, 하루에 2개 면을 방문해 최고 164명까지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특히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 접종이 가능토록해 3차 접종률 상승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유철민 최모 어르신은 “김장 준비로 바쁜 시기였는데 추가접종까지 하려니 머리 무거웠다. 백신버스 운영으로 읍까지 가지 않고 빨리 접종할 수 있어서 몸도 마음도 편했다”고 말했다.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 시기가 2차 접종 후 3개월로 단축됐으며, 백신접종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1-430-3588, 3577, 3595)으로 연락하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백신이 남아 있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승욱 군수는 “추가접종 완료를 위해 백신버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접종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고 당부했다.

안광철 기자